

(Robert Vannoy) , 대선지자, 제17과

주님의 종 주제 계속

이사야 50:4-11

이사야 50:5-6 종의 성품

우리는 종 주제에 대한 토론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이 끝날 무렵 50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요 구절입니다. 검토를 위해 시작하면서 이 차트를 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0:4-11의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인의 굴욕을 강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6절을 읽으십시오: “내가 내 등을 때리는 자들 에게 , 내 뺨을 내 머리를 뺨는 자들에게 맡겼느니라.” 앞의 5절은 종의 성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자원하는 고난과 종의 성격을 통해 종은 개인이어야 하며 국가로서의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개인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나는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딪돌 같이 굳게 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나이다.” 나는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이사야 50장 8절부터 11

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0:8-9 종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말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읽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느니라. 누가 나와 다툴 것인가? 우리 함께 일어서자, 나의 적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도록 해주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 모두는 옷처럼 낡아질 것이다. 썩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8절과 9절을 보면 계속 말하는 종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종은 6절에서 “내가 내 등을 때리는 자들 에게 맡겼느니라 ” 고 말하고,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종이 계속해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완수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선언하는가, 아니면 말하는 사람 중에 종의 완료된 일, 즉 완성된 일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니라. 그러면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다고 누가 전파하느냐? 나는 후자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느니라.” 즉,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종의 일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는 지식으로 어떤 대적에게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옷 같이 낡아지게 될
것입니다(9절 마지막 구절). “좁이 그들을 먹느니라.” 주님께 충실한
사람만이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사야 50:10-11 - 두 그룹의 사람들 이제 그 전환이 8절과 9절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일 수 있지만, 내 생각에 당신은 분명히 10절과 11
절에서 전환에 들어갑니다. 10절과 1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인은 더 이상 그곳에서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10절과 11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10부류이고 다른 부류는 11
부류입니다. 첫째 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은 또 다른 무리, 곧 주를
거역하는 자들, 주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종을 따르며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피우고 불꽃으로
몸을 두르는 너희들아. 당신의 불의 빛 가운데, 당신이 피우신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소서. 이것은 당신이 내 손 에 맡길 것입니다 . 너는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진술입니다. 첫 번째 부류 :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다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 “어두움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내 생각에 요점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안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들도 어둠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추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하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와 대조되는 것은 11절에서 자기 자신의 피의 빛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운명을 말해줍니다. ” 자신의 장치에 비추어 걷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11절은 그들이 자기의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슬픔과 고통 속에 누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은 두 가지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당신은 종의 완성된 일을 받아들이고 종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주님을 대적할 수 있고,

당신 자신의 계약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며, 종의 일을 반대할 수 있으며, 그러면 당신은 슬픔 속에 누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하인의 구절 옆에 있는 이 글의 끝입니다.

그것은 9번 이사야서 50:4-11입니다. 주요 구절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마지막 구절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네 번째 주요 구절인 이사야서 52:13부터 53:12입니다.

4. 이사야 52:13-53 :12 이스라엘의 구별된 종

알겠습니다. 이사야 52:13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의 구속 사업에 관한 절정의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사야서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라” 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인에 대한 마지막 명시적인 언급입니다. 이 절정의 구절 다음에 당신은 그 용어의 복수형 사용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종(복수)에 대해 읽었지만 결코 종(단수)에 대해서는 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종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 자신의 사역의 절정이다. 챕터 구분이 52:15에서 53:1 사이인 것이 아쉽습니다. 52장 13-15절이 53장으로 바로 이어지며 확실히 한 단위이기 때문에 52장 12절 뒤에 장 구분을 두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 그래서 53년 이후에는 종의 일의 결과와 진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연대기라 부르지 않고 종의 개념의 발전에 있어서의 진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은 많지만 내용이 채워지고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모양과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53년 이후에는 종의 일보다는 종의 일의 결과와 어떤 의미가 작용하는지에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52:13 이전과 그 이후에는 그 종이 이스라엘과 구별된다는 힌트가 있었습니다. 이는 종이 야곱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49장 5절과 6절에서 특히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6절에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를 회복시키는 일은 작은 일이니라. 나도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삼겠다.” 즉, 49:5와 6에서는 종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이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 종은 이스라엘 출신,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이스라엘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50장에서 종이 “나는 패역하지도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하였노라” 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이스라엘 나라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힌트를 보았고 49장에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전체 국가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종은 큰 일, 즉 이방인들의 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에 빛을 가져오는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이스라엘은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빛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일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이사야 53장에 관한 OT Allis의 많은 사람들이 종의 고통받는 나라를 붙잡고 있습니다 . 이제 30페이지의 인용문을 보십시오. 저는 OT Allis의 책인 *The Unity of Isaiah* 에서 몇 문단을 가져왔습니다 . 이 책은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종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인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누군가인가? 메시아닉인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은 몇 년 전에 작성되었지만 현재 상황에도 똑같이 잘 적용될 이사야 53장에 관한 다음 진술로 설명됩니다 . ’ 현재 대다수의 기독교 학자들은 유대인의 해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개인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국가를 지칭합니다.’ ”

그가 말하는 대다수의 기독교 학자들은 폭넓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개신교나 가톨릭 학교의 성경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그것이 맞는 진술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을 기독교 학자라고 부르고 싶은지 논쟁을 벌일 수 있겠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는 “비판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인으로 대체하더라도 이 진술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통 받는 민족” 해석은 비판적인 학자들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인기를 끌거나 인기를 끌었던 다른 해결책도 있습니다. 인용한 이유는 작가가 자신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비판적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유대인의 해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기 유대인 해석: 메시아적 그러므로 이것이 원래 유대인 해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요나단 타르굼은 이사야 52장 13절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보라, 내 종 메시야가 형통하리로다.” 타르굼은 일반적으로 약간의 의역을 가미한 히브리어의 아람어 번역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탈굼에서는 그 종을 메시아로 식별합니다. 그러므로 종의 굴욕, 죽음, 부활에 대한 묘사가 문제를 일으켰고 그들이 당연히 해결할 수 없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해석이 초기 유대인들 사이에 통용되었다는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라시(Rashi), 이븐 에스라(Ibn Ezra) 등과 같은 뛰어난 유대인 학자들이 “이스라엘 해석”을 채택한 것은 중세 시대가 되어서야 나온 것입니다. 비록 그 해석이 오리게네스 시대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적

관점의 해석을 이해하는 한 , 이 상반되는 해석을 채택한 그들의 목적은 구약성서의 예언과 그들이 잘못 주장한 예언의 성취라고 믿었던 것, 즉 신약성서의 죽음으로 기록된 예언 사이의 연관성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보세요,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강력한 기독교인의 주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대한 신약의 메시아적 해석

이 문제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특별한 이유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학자들이 그들과 유대인이 받아들이는 구약성서 사이의 연관성을 파괴하기 위해 계획되고 의도된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거부하며 동시에 둘 사이의 연관성을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신약성서,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성서의 표현된 주장에 기초하여 완전히 명백하다고 간주했습니다. 어떻게 브리지를 무너뜨리고 연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러한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이는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예언을 그렇게 해석했을 때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까? 이 학자들은 그러한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유대인의 주장이 옳았다고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는 물론 신약성서 저자들이 예언을 그렇게 해석했을

때 실수했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오스왈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해석을 거부한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고통받는 종의 예언에서 누가 언급되는가?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전통 신앙이나 신약성서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문제는 이중적 문제입니다. 만약 예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면 그 예언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신약성경 해석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것으로 매우 분명하게 호소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서에서는 교회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확실히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약속과 축복에 확실히 참여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민족적 대 정신적 구분은 여전히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둘 다 정의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지만, 특히 중세 이전의 유대인 해석가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참조가 아닌 메시아 예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는 훌륭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그래서 그것은 기독교적 관점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러한 이해를 고수했다는 좋은 증거도 있습니다. 질문?

학생 의견: 저는 방금 제 책인 '예수를 위한 유대인'을 읽었는데 회당에서 읽는 동안 그들이 이사야 52장 12절 다음에 멈추고 52장 13-15절을

건너뛰고 바로 이사야 53장 1절로 건너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Vannoy의

답변: 흥미롭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대한 일반 논평

좋아요, 한 구절씩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인 성격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사야 40장부터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강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종의 구절 중 절정에 달하는 구절에 이르면 포로 생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추방은 그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이 절정의 구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포로 뒤에 숨어 있는 문제, 즉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종의 일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유배를 초래한 것은 죄입니다. 인류의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죄이며, 이 구절에서 다루는 문제도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사야 52:1-12 기쁨의 노래 이제 우리는 이사야 52:1-12을 보지 않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것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니라!” 9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즐거이 외쳐 함께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52:1-12에는 큰 기쁨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52:13과 그 다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기쁨의 이유입니다: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종의 일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이사야 52:13 종의 성공

그럼 본문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라. 그는 높아지며, 지극히 높임을 받고, 매우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종이 자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라.” 거기에 있는 히브리어 용어는 동사 형태인 야스킬(*yaskil*)입니다. “신중하게 거래하다”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의 기본 개념은 “현명하게 행동하다”이며, 그것은 “결과를 가져올 방식으로 일을 하는 데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흔히 “번영하다”로 번역됩니다. NIV에서 “보라, 내 종이 현명하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텍스트 번역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는 “번영할 것입니다.” 나머지 구절은 승영을 뜻하는 세 개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nasah*, *rum*, 그리고 *davah* 입니다. 그들 모두는 승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가 높여지고 지극히 높임을 받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리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NIV에서는 “그는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워지리라” 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두 번째 사람에게 대해 “찬양을 받으라” 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들려 올라가다” 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어 매우 높으리라” 고 했습니다. 이제 Delitzsch 의 논평에는 그 지점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세 동사를 사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는 높임을 받을 것이며, 그의 승천은 높이 들리리라.” 나는 그것이 그 동사들을 기초로 가르쳐지고 있다고 말하기를 주저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동사가 반복과 병행을 통해 성공을 강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들어올려지고, 들리고, 높이 들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종의 일이 성공할 것인지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4 절 이스라엘과 종이 받는 굴욕

52장 14절에 이르면 대조가 나타납니다. 14절에는 내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번역 질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용모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니 이와 같이 그가 많은

나라에 흠뿌리리라” (15절). 13절과 대조적으로 14절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의 이전 굴욕에. 바로 그 시점에서 이 내용을 처음 듣는 사람과 독자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을 갖게 됩니다. 49:7a의 종 구절에서 이전에 굴욕에 대한 암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시요 그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멸시받는 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50장 6절에 보면 “내가 때리는 자들 에게 내 등을 맡겼느니라 ” 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의 굴욕에 대해서는 간략한 제안만 있었습니다

. 내 생각에 52장 14절은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에서 잘 번역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히브리어 구조를 보면 실제로 *tasher ken ken*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킹제임스 성경과 NIV 성경 모두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역자들은 실제로 구조를 놓쳤습니다. 히브리어로 두 번째 구의 시작 부분에 있는 'so' 라는 단어는 *ki* 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상하였으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얼굴이 어떤 사람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의 아들들보다 상하였으니 **그리하여** 그가 많은 나라에 뿌릴 것이다.” 보세요 , *켄, 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구조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무릇 주를 보고 놀라는 자들이니라” 는 것입니다.

“너” 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 “ 너 ” 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 너희를 보고 놀란 자들이 이렇게 되었고도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 때문에 겁에 질렸습니다. 이스라엘은 52장 전체의 수신자입니다. “ 이스라엘아,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으로요. ” 비교입니다. “ 그러므로 그 사람의 얼굴도 그와 비슷하게 누구보다도 상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보고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그 얼굴도 그 종인 다른 사람보다 상하였느니라. 그래서 종의 굴욕과 이스라엘의 굴욕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에 대해 생각할 때, 두 가지 굴욕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굴욕은 죄의 결과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종이 낮아지는 것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굴욕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구절, 즉 두 번째 “so” 에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을 보고 놀란 자마다 그의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인생보다 상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많은 나라에 뿌릴 것이다. ” 이 “그래서”는 결과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카셀 도 그와 같으니 그 종의 얼굴이 상하였으니 그 결과 그가 많은 나라에 뿌릴 것이라. 저는 그것이 구조적이고 흐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2장 15절 “많은 나라에 뿌려라”

그러므로 “그가 많은 나라에 뿌릴 것이라” 는 흥미로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신 결과로 많은 나라를 뿌릴 것입니다. “뿌린” 으로 번역된 단어는 *나자 입니다* . 이것은 레위기에서 성막에 있는 물건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화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로 이루어졌고 때로는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들을 정화하기 위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그가 많은 나라를 뿌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 굴욕의 목적은 많은 나라를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절정 구절의 시작 부분에서 전체 구절의 중심 개념이 다루어집니다. 종이 자신의 굴욕의 결과로 많은 나라를 정결케 하거나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굴욕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열방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 그러나 예를 들어 개정 표준역(Revision Standard Version)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가 많은 나라를 놀라게 하리라.” “ 뿌린다” 는 문구가 나오며 “그가 많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임이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주가 있는데, 각주에 “또는 뿌리다”라고 쓰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각주에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불확실하다” 고 되어 있습니다. RSV의 각주입니다. *나자라*는 단어는 24번 나옵니다. 칼 에서 4번 , 히필 에서 20번 . 이것은 히필 형식입니다. 항상 “*뿌린다*” 로 번역 됩니다 . 그래서 나는 이 단어가 항상 “*뿌린다*” 로 번역되는 많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의미가 아니라는 반대 증거는 없습니다. 내 생각에 유일한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문맥에서 그 단어가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칠십인역은 “이와 같이 많은 나라가 그를 기이히 여기리라” (*thaumazw*)라는 문구를 번역합니다 . “ 그러므로 많은 나라가 그를 기이히 여기리라. ” 그것은 “많은 사람이 놀라며” 라는 구절의 평행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 그것은 일종의 유사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 자체는 분명합니다. “*뿌린다*” 고 되어 있습니다. RSV가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불확실합니다. 이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세 번째 남성 단수 형태입니다. 보십시오, *그들-많은-이* 그에게 경악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그렇습니다*” 를 봅시다 . *그리하여* 그가 민족들에게 뿌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서” 구조입니다. 나는 킹제임스 성경과 NIV 성경이 왜 그렇게 번역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NASV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것은 내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 , “*그렇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 앵커 성경(Anchor Bible)은 이

문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많은 나라에 뿌릴 것이요”,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놀랄 것입니다.” 앵커 성서의 각주에는 “역본에 근거한 추측적 수정” 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에 대한 히브리어 성경 각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많은 나라에 뿌릴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LFRT는 “아마도 읽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복수형, 세 번째 남성 복수형으로 만듭니다 . 원고 증거에는 “아마도 읽어보세요”라고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에 의한 수정입니다. PRPS의 경우 편집자는 세 번째 남성 복수형 Qal Imperfect *ragaz* “동요되다” 를 제안합니다. 추측적 수정. 그러한 추측 수정을 뒷받침하는 원고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는 BEL, 즉 세 번째 남성 복수형 히필 불완전형, “굴복하다” . 당신이 BHS에 오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안한 한 가지 제안은 *nazah*가 원래 의미로 “분출하다” 또는 “튀기다” 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어떤 사람들은 “스퍼트”나 “스퍼터”에서 “놀라움”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가 열방을 뿌릴 것이다” 대신에 “열방이 놀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여기 위에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 *ragaz* ”를 *순전히* 추측합니다 . 동요하거나 *bazah*를 “경멸하다”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명확한 단어를 무언가로 대체하기 위해 제안된 추측의 수정 정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바로 그 정결케 하는 도구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52장 15절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잘못된 구절 구분이 있습니다. 15절의 첫 번째 문구는 실제로 14절과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이 너희를 보고 크게 상하였으므로 그의 용모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니 그가 많은 나라를 흠으실 것이라 .” 내가 언급한 대로 레위기에서 이 단어가 24번 뿌리는 것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뿌린다” 고 아주 명확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15절의 첫 번째 문구는 15절의 뒤따르는 부분보다 14절의 마지막 부분과 더 잘 어울립니다. 따라서 거기의 절 구분이 다시 빈약합니다. 그러나 15에 이르면 왕들이 그들이 보는 것으로부터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을 일입니다. “왕들은 그에 대하여 입을 다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이 종의 사역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굴욕을 통해 자기 일을 완수하고 완수합니다. 그분은 정결케 하기 위해 열방에 뿌리시며 그 결과 저명한 사람들이 그로 인해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게 한다는 개념이 사람이 물이나 피를 뿌릴 때 뛰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들을 뛰게 하거나 뛰게 한다는 가정에서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약을 의미하는 유사한 아랍어 어근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BHS 히브리어 텍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추측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텍스트가 있었다면 그런 수정 사항을 검색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다른 용도가 있고 해당 용어의 다른 용도가 매우 명확한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뿌리다의 개념이나 정화의 의미는 매우 일반적인 개념이므로 “뿌린다”의 의미에 대해 다소 모호한 대체 소스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53:1-2 종의 비천한 기원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에 수사학적 질문이 있습니다. Young은 그것이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제안합니다. “누가 우리 보고를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즉, 주님께서 구원을 가져오신 방식의 예상치 못한 성격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보고를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한 태도에 대한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그를 볼 때에 우리가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절에서 우선 그의 출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연한 풀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자라납니다. 겸손한 기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구원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외적인 매력도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출신이고, 그리스도 당시의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작고 하찮은 집단에서 세상에 구원을 가져올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입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며 그는 범죄자의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확실히 십자가는 정복자, 구원자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큰 군대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정치적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2절은 그의 성격이나 그의 위대한 아름다움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천한 출신과 그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자라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더라. 우리가 그에게 바랄 만한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이사야 53:3 고통과 상처를 입은 사람 이사야 53 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 슬픔을 많이 겪는 사람이요, 슬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에게서 얼굴을 숨겼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에서는 그의 죽음과 관련된 슬픔과 비참함을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사람들의 음모를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의 손에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멸시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슬픔 의 사람이요 , 슬픔을 아는 사람이로다 .”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슬픔과 슬픔. 첫 번째는 “고통” 을 의미하는 남성 명사입니다. 두 번째는 “병” , “질병” , “상처로 인한 고통” 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요, 슬픔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애통과 애통은 그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겪으신 육체적 고통을 가리킨다. 그 내용은 4절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53:4 그분이 행하신 일과 우리가 생각한 것: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4 절 :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거기에서는 “슬픔”과 “슬픔”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지만 번역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범위가 더 좁습니다. 나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슬픔과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신체적 부상, 질병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더 나은 번역은 그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용문의 31-32페이지를 보십시오. 나는 Dr. MacRae의 글 에서 한 단락을 가져왔습니다. *이사야서* . 몇 단락입니다. 이것만 보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인용 페이지 31 페이지는 *이사야 복음의* 136-138페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 MacRae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은 매우 구체적인 두 단어가 다소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크게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절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뚜렷하게 대조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비슷하게 강조한 *we*와는 대조적으로, 첫 번째 부분의 시작 부분에서는 대명사 *he* 를 크게 강조합니다 . 아시다시피 ' 그는 실로 우리의 짐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다' 고 하여 그가 행한 일과 우리가 생각한 것의 대조를 나타냅니다.

이 대조는 이 구절이 일반적 으로 확실하게 또는 참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로 시작한다는 사실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 위의 번역에서는 대조를 더욱 완전하게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실제로' 로 번역했습니다.” MacRae가 직접 번역한 내용입니다 . “이 구절의 처음 두 단어는 나르다, 들다라는 뜻의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이며,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제거하다, 빼앗다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그들과 함께 사용되는 명사는 육체적인 고통과

허약함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슬픔과 슬픔'은 너무 일반적입니다.

이 절은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묘사합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8장 16-17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분의 치료하는 일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가 친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관찰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비록 그들이 그분의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붙잡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의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 '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나중에 오순절 날 개종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낯선 사람으로 데려온 그 사람에게 그들이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수 있기를 바랐던 분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크게 슬퍼했다고 말한 것은 확실히 사실이었습니다. . 하지만 그 희망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증거로 치유의 위대한 기적을 직접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36, 10:38, 14:11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치유의 위대한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가 신적이라는 주장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노여움의 결과가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는 전혀

다른 의미임을 깨달았습니다. 해석자들은 때때로 속죄를 4절 전반부로 다시 읽습니다. '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느니라' 번역된 ' 고통과 질병' 은 일반적인 슬픔, 고통, 슬픔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번역하더라도 ' 슬픔과 슬픔' 은 죄에 대한 개념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마태복음 8:16-17과 베드로전서 2:24에 대한 난외 참조를 제공합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사야 53장 4절 전반부와 공통되는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보레(bore)* 라는 단어이다 .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사야 53장 5절을 인용하고 있지만, 4절도 인용한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

따라서 MacRae 의 요점은 4절의 첫 번째 부분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느니라” . 그것은 그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했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나중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그분이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으신다고 여겼지만, 그분이 행하신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한 일과 그를 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행한 것은 대조입니다. “우리” :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그분이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로 인해 그분이 구주가 아니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계속하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

Maya Bam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편집된 Carly Geiman

편집자: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

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